

11

올림픽대회 마라톤 2연패의 꿈



1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의 등장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한국은 파견 선수 선발과 기량 향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부터 금메달을 따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기존 5000만 원의 포상금을 1억 원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00년 육상경기 강국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2월 중국 텐진에서 벌어진 한·중·일 3개국 대항전 국제실내육상경기대회 남자 400m에서 손주일이 46초 88로 우승한 데 이어 800m의 김순형과 1500m의 김남진도 각각 1위를 했다.

4월 26일 제2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이명선은 하루에 두 차례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차 시기에서 17m 27(종전기록 17m 02)을 던진 데 이어 2차 시기에서 17m 66로 다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명선은 앞서 3월 상하이 육상경기대회에서 17m 02를 기록해 1974년 백옥자가 세운 16m 96의 한국기록을 22년 만에 경신한 바 있다.

5월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대표 선발전 겸 제5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2만m 경보에서 한국신기록 셋이 나왔다. 유영배가 1시간 29분 21초 73으



이명선이 포환을 던지는 장면. 그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 참가해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한국팀에 28년 만에 은메달을 안겨 주었다.

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 1시간 33분 52초 62를 4분 30초가량 앞당기며 1위를 한 데 이어, 2위 한기연, 3위 이승훈까지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6월 제25회 전국남녀중고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5000m 경보에서 박미리가 23분 18초 14(종전기록 23분 39초 90)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남자 높이뛰기의 이진택은 5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에서 2m 30으로 우승한 데 이어 파리 그랑프리대회에서도 2m 32로 1위를 하며 올림픽대회 결선 진출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성화 최종 주자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무하마드 알리. 세계를 맨주먹 하나로 제압한 알리였지만 당시 불과 2, 3kg

의 성화조차 들어 올리기 어려운 중환자였다. 그는 천천히 올림픽 성화에 불을 붙였다. 근대 올림픽경기대회가 탄생한 지 100주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는 그렇게 개막됐다. 1960년 로마 올림픽대회 복싱 라이트헤비급 금메달리스트 캐시 어스 클레이는 미국 오하이오 강에 금메달을 집어 던졌다. 흑인 차별에 대한 항의였다. 올림픽 금메달을 강물에 던진 클레이는 프로로 전향해 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이 된다. 그가 바로 개명한 무하마드 알리다.

1996년 황영조는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국내 선발전을 겸한 동아국제마라톤에서 발에 쥐가 나 29위의 저조한 성적을 냈다. 이 바람에 그는 결국 올림픽대회 참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한국은 올림픽대회 육상경기에 남녀 17명을 파견했다.

특히 황영조가 빠진 마라톤에서 이봉주, 김완기, 김이용 등이 올림픽대회 2연패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남자 높이뛰기의 이진택은 그해 6월 파리 그랑프리대회 우승의 여세를 몰아 마라톤을 제외한 올림픽대회 육상경기 최초의 메달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결선에서 자신의 한국기록인 2m 33에 4cm가 모자라는 2m 29로 8위에 그쳐 메달 획득이 무산됐다. 이진택은 2m 20에서 시작해 2m 25, 2m 29를 모두 1차 시기에 통과해 메달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러나 2m 32에서 세 차례 모두 바에 다리가 걸리는 바람에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다.

여자 포환던지기의 이명선은 16m 92로 21위, 장대높이뛰기의 김철균은 5m 40으로 20위에 각각 머물며 결선 진출에 실패해 세계 수준과의 실력 차이를 절감해야 했다.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서는 캐나다의 도노번 베일리가 남자 100m에서 9초 84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땀고, 미국의 마이클 존슨이 올림픽대회 사상 처음으로 200m와 400m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봉주와 투과니의 불꽃 튀는 경쟁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마지막 날 경기인 남자 마라톤은 메인스타디움을 스타트해 오글러소프대학 반환점을 돌아오는 코스에서 치러졌다. 레이스는 한여름의 지독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아침 7시 5분에 스타트를 끊었다. 안개가 끼고 습도가 높은 날씨였다.

선수들 모두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했지만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두 그룹에는 이봉주를 포함해 48명이 남아 있었다. 브라질의 산토스가 페이스를 올리자 30km 지점에서는 선두 그룹이 21명으로 줄었다. 이봉주는 그 선두 그룹에 끼어 있었다.

32km 지점에 이르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조시아 투과니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그는 1994년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14위에 그친 거의 무명이었다. 이봉주는 50m 거리를 두고 추격하고 그 뒤를 케냐의 에릭 와이나이아가 쫓았다. 이후 이들은 3km 동안 선두 각축을 벌였다. 35km 지점에서 와이나이아가 바짝 거리를 좁혀 왔다.

36km 지점에 이르자 이봉주는 초인적인 스퍼트를 감행해 선두 자리를 뺏으며 올림픽대회 2연패를 향해 역주했다. 투과니, 이봉주, 와이나이아 셋은 마지막 5000m를 15분 11초로 달렸다. 투과니는 몇 차례 스퍼트를 시도해 이봉주와 와이나이아를 제쳤다. 그럴 때마다 이봉주와 와이나이아는 끈질기게 뒤쫓아 투과니와의 거리를 좁혔다.

31km 지점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 이봉주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39km 지점에 이르러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피니시라인을 1km가량 남기고 투과니는 속도를 올려 와이나이아를 30m 앞서 달렸고, 그 뒤를 이봉주가 바짝 뒤쫓았다.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 이후 마라톤 경기에서 처음으로 세 선수가 주경기장에 달려들어 온 것이다.

그야말로 불꽃 튀는 접전이였다. 결국 투과니는 이봉주보다 고작 3초 빠른 2



▲ 이봉주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3초 차 2위로 들어온 뒤 V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 이봉주의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마라톤 레이스 모습. 우승자인 투과니, 와이나이나와 물을 마시며 함께 달리고 있다.



시간 12분 36초로 금메달을 땀고 이봉주는 2시간 12분 39초로 2위로 주경기장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3위 와이나이나는 2시간 12분 44초로 이봉주에게 5초 뒤졌다. 김이용은 2시간 16분 17초로 12위였고, 김완기는 기권했다.

이 레이스는 올림픽대회 마라톤 역사상 가장 불꽃 튀는 접전으로 꼽힌다. 다음 날 한 신문은 이 경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봉주 마라톤 한국 건재 확인……황영조 은퇴 후 공백 우려, 금 못지않은 은……무더위 속 유례없이 치열한 레이스 역주 돋보여……’ ⁰⁰¹

사실 우승한 25세의 투과니는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니었다. 또한 123명의 참가 선수 가운데 가장 작은 158cm의 키에 몸무게도 47kg밖에 되지 않았다. 투과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수단이 구성될 때 대표선수로 끼어 있지도 않았다. 올림픽대회에 임박해서 열린 남아프리카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2시간 11분 46초로 우승해 추가 선발된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우승한 투과니는 남아프리카 흑인으로선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⁰⁰²

봉달이 이봉주의 달리기 인생

‘봉달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봉주는 1970년 10월 10일 충남 천안의 작은 시골집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의 2남2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진 한 장 찍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공을 차고 달리를 잘해서 상급생에게도 뒤지지 않던 이봉주는 천안 시내 천성중학교에 들어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기 싫어 복싱과 태권도를 택했다.

⁰⁰¹ 동아일보, 1996년 8월 6일자.

⁰⁰² 돈을 벌기 위해 축구에서 달리기로 전향한 투과니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는데 우승 후 갖고 싶었던 CD플레이어와 서른 장의 CD를 사곤 행복해했다고 한다. -고두현, 2008, p189.

육상경기를 시작한 것은 천안농고에 들어가면서부터. 축구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육상경기부에 들어갔다. 1학년 겨울방학 때 선배를 따라 인천체육전문대학(지금의 인천체대)에서 한 달 동안 합숙훈련을 했다. 합숙비 10만 원은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큰누나가 마련해 줬다.

이 합숙에 함께 참가한 사교고 상급생이 “너 정도 실력이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학을 권유하는 바람에 등록금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그 학교로 옮겼다. 하지만 학교 재정이 어려워져 사교고의 육상경기부가 해체됐다. 때마침 광천고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이봉주는 이곳으로 전학했다.

광천고 3학년 때 그는 전국체육대회 10km 단축마라톤에서 3위를 차지해 체육 특기자로 대학 진학의 자격을 얻었지만 학비 마련이 어려워 실업팀에 가기로 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야간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이봉주는 서울시청 육상경기부에 들어갔고, 서울시립대 야간부 무역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서울시청에 들어간 그는 1990년 전국체육대회 마라톤에서 2시간 19분 15초로 2위를 차지하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서울시청팀에는 4년 동안 몸담는 게 관례였다. 4년이 지나면 서울시립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데다 신입 선수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봉주는 1994년 코오롱 유니폼을 입었다. 서울시청 시절이던 1993년 하와이 호놀룰루마라톤에서 우승한 것을 정봉수 감독이 눈여겨봤던 것이다.

여기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지도해 주는 오인환 코치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코오롱에서 이봉주가 설 자리는 없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우승한 동갑내기 황영조가 펄펄 날고 있었다. 선배 김완기도 1993년 3월 경주 동아마라톤에서 우승(2시간 9분 25초)하는 등 건재했다.

이봉주는 크고 작은 부상으로 컨디션도 썩 좋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혹독하기로 유명한 정봉수 감독식의 하트 트레이닝을 받아야 했다. 이봉주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옆에 있는지 없



이봉주가 1996년 3월 경주 동아국제마라톤대회에서 선두 그룹에 속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그는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참가 티켓이 걸린 이 대회에서 2위를 하며 마라톤 인생에 가속도가 붙었다.

는지 모를 정도(당시 오인환 코치 회고)”였다. 그러나 이봉주의 속은 끓고 있었다. 그는 방황했고 술을 마셨다. 가끔 팀을 이탈해 정 감독으로부터 심한 질책도 들었다.

이봉주는 1994년 4월 19일 보스턴마라톤에 나가 개인 신기록(2시간 9분 57초, 11위)을 세웠지만 같이 참가한 황영조의 한국기록(2시간 8분 9초, 4위)에 빛을 잃었다. 역시 황영조라는 산은 높기만 했다. 동갑내기 황영조는 고등학교 때부터 크고 작은 대회를 휩쓸었다. 이에 반해 이봉주의 고교 때 성적은 이렇다 할 게 없었다.

늘 먼발치에서 황영조가 우승하는 걸 지켜봐야 했다. 만약 고3 때인 1989년 제70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10km 단축마라톤에서 3위(30분 52초)에 들지 못했다면 서울시청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1만m에서 황영조가 30분 35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봉주는 1995년 경주 동아국제마라톤에서 우승하면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6년 3월 17일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참가 티켓이 걸린 경주 동아국제마라톤에서 2위를 하며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경주가 그를 우뚝 일어서게 한 것이다.

라이벌 황영조는 그 대회에서 29위(2시간 29분 45초)로 올림픽대회 참가 자격을 얻는 데 실패했다. 25km 지점에서 선두권 20여 명이 스피드를 올리자 황영조가 갑자기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인도에 앉아서 신발을 벗었다. 얼굴은 온통 일그러져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발에 쥐가 난 데다 발바닥에 물집까지 생긴 것이다.

황영조는 잠시 근육을 푼 뒤 절뚝거리며 다시 달렸지만 승부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으로 몬주익의 영웅은 하루아침에 추락해 버렸다. 당시 마라톤에서 올림픽대회 참가 티켓은 3장. 이봉주는 역시 끈질겼다. 35km 지점부터 스페인의 마르틴 피스와 즐기치게 선두다툼을 벌였다. 피스가 도망가면 이봉주가 따라붙었고, 그가 조금 앞설라치면 피스가 곧바로 따라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피니시라인에서 피스에게 1초 차로 뒤졌다. 그 뒤를 김완기, 김이용이 이었다. 결국 이봉주, 김완기, 김이용이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 나갈 한국 선수로 결정됐다. 여론은 ‘황영조 구제론’으로 시끄러웠다. 당시 건국대생이던 김이용 대신 황영조를 보내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발 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나쁜 선례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 여론은 “황영조를 보내야 한다, 안 된다.”로 들끓었다. 이렇게 되자 황영조가 스스로 전격 은퇴를 선언해 버렸다. 꽃이 통째로 떨어지는 동백꽃처럼 꽃을 피우자마자 곧 진 썸이다. 당시 육상경기계는 물론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애틀랜타 올림픽대회가 코앞인데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티켓도 따지 못한 채 은퇴해버리다니.

마라톤 천재 황영조와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거꾸로 이봉주는 이때부터 펄펄 날았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2위,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우승, 2000년 도쿄마라톤 2위(한국기록 2시간 7분 20초), 2001년 보스턴마라톤 우승,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우승, 2007년 서울국제마라톤 우승 등으로 황영조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났다. 오인환 감독은 말한다.

“두 사람은 참으로 대조적이다. 황영조는 부모로부터 천부적인 심폐기능을 물려받았다. 보통 사람보다 폐활량이 두 배가 넘는다. 이봉주는 그 반대다. 피나는 노력으로 유산소운동을 많이 해서 폐활량이 커졌다. 성격도 황영조가 외향적이라면 이봉주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

황영조는 마라톤 천재다. 그는 마라톤 도전 4번 만에 92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월계관을 썼다. 그 이전 성적은 1991년 동아국제마라톤 3위(2시간 12분 35초), 1991년 셰필드 유니버시아드대회 우승(2시간 12분 40초), 1992년 벳푸~오이타 마라톤 2위(2시간 8분 47초)가 전부다. 5000m급 산봉우리를 3번 오른 뒤 단 한 번 만에 에베레스트(8850m) 정상을 훌쩍 밟은 셈이다. 황영조는 1996년 경주 동아국제마라톤에서 8번째 완주(3번 우승, 2번 준우승)를 끝으로 무대를 떠났다.

이봉주는 노력파다.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바늘로 우물을 파듯 한 땀 한 땀, 조금씩 이뤄냈다. 이봉주는 마라톤 도전 15번 만에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2위에 올랐다. 그 뒤로도 두 번(2000년 시드니 24위, 2004년 아테네 14위)이나 더 시도했지만 끝내 올림픽대회의 월계관을 쓰는 데는 실패했다. 아시아경기대회 2연패(1998년 방콕·2002년 부산), 2001년 보스턴마라톤 우승 등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는 두루 섭렵했지만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올림픽 우승)엔 끝내 실패한 것이다.

마라톤의 묘미 트랙게임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질주를 하고 있는 마라톤 선수들. 사진은 1994년 동아국제마라톤에서 1위를 한 포르투갈의 마누엘 마티아스 선수(앞)와 2위를 한 김완기 선수.

마라톤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은 뭐니 뭐니 해도 트랙게임이다. 트랙게임이란 마지막 피니시라인을 앞두고 트랙이 있는 경기장 안에서 펼쳐지는 레이스를 말한다. 올림픽대회나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같은 큰 대회에서는 으레 남자 마라톤이 마지막으로 치러진다. 남자 마라톤 우승자가 그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것이다. 경기장은 보통 관중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다. ‘ 과연 누가 경기장 트랙에 가장 먼저 들어설 것인가?’ 눈을 반짝이며 기다린다.

2명이 거의 동시에 경기장 트랙에 들어온다면? 아니 3명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선

두 다툼을 하며 들어선다면? 아마 경기장의 만원 관중들은 그만 숨이 꼴깍! 넘어갈 것이다. 입에 침이 마르고, 자기도 모르게 손바닥이 터져라 박수를 쳐 댈 것이다. 남은 거리는 길어야 300~400m. 시간으로는 길어야 50여 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누구를 꼭 집어 응원하는 것도 아니다. 트랙 경쟁을 벌이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모두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게 마련이다. 그래도 승부는 승부다. 선수로선 이겨야 한다. 앞선 선수는 그대로 피니시라인에 피니시해야 한다. 쫓아가는 선수는 져 먹던 힘을 다해서라도 앞선 선수를 제쳐야 한다. 하지만 100리가 넘는 먼 길을 달려온 선수에게 한두 걸음 차이는 천 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진다.

이봉주는 이런 트랙게임에서 두 번이나 지고 말았다. 한 번은 1996년 경주 동아국제마라톤에서 스페인의 마르틴 피스에게 1초 늦은 2위(2시간 8분 26초)에

들어온 것이다. 거리로는 5, 6m 차.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다. 그러나 이봉주의 트랙게임 징크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 이어 열린 96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서 또 3초 차로 2위(2시간 12분 39초)에 머문 것이다. 1위는 남아공의 조시아 투과니. 거리로는 15~18m 정도. 올림픽 남자 마라톤 사상 가장 짧은 시간 차다.

“경기장에 들어서기까지 50여m 떨어졌지만 죽을힘을 다해 조금씩 좁혀 가고 있었다. 투과니와 15m 정도 떨어져서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피니시라인이 보였다. 피니시라인이 조금만 더 뒤에 있었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원통했다.”

이봉주가 트랙 경기에서 지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긴 적도 두 번이나 된다. 한 번은 1995년 3월 경주에서 열린 동아국제마라톤. 당시 그는 스물다섯의 한창 때였다. 8개국에서 95명이 참가했지만 30km가 지나자 이봉주, 네루카(영국), 에스피노사(멕시코, 94년 세계 랭킹 2위), 마티아스(포르투갈) 4명으로 좁혀졌다.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이제나 저제나 마지막으로 스퍼트할 틈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38km 지점에서 이봉주가 맨 먼저 뛰쳐나갔다. 나머지 3명의 선수들도 안간힘을 다하며 바로 뒤를 따라 붙었다. 코스는 서서히 오르막에 접어들어 결국 지구력이 누가 더 강하느냐의 싸움이였다. 경주 북군동에서 한화콘도에 이르는 고개에서 에스피노사와 마티아스가 떨어져 나갔다. 영국의 대학생 마라토너 네루카는 힘이 좋았다. 씩씩대며 이봉주 뒤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당시 피니시라인은 유감스럽게도 경주 현대호텔 정문 앞. 트랙은 없었지만 트랙 레이스나 마찬가지였다. 길가엔 수많은 경주 시민들이 손에 땀을 쥐며 “이봉주 파이팅”을 외쳤다. 그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진드기같이 따라붙던 네루카도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봉주가 네루카를 약 27m 앞서 5초 차 우승(2시간 10분 58초). 그의 생애 첫 국제대회 우승이었다. 이봉주의 두 번째 트랙게임 승리는 2007 서울국제마라톤. 피니시라인을 1.575km 앞둔 40.62km 지점. 한때 30여m까지 떨어졌던

그가 어느새 케냐 키루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더니 갑자기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길가 시민들은 처음엔 설마하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결국 이봉주는 2시간 8분 04초의 기록으로 피니시라인을 댄 먼저 통과했다. 약 137m 뒤에 처진 키루이는 25초 늦은 2시간 8분 29초의 기록으로 2위로 피니시했다.

트랙게임을 벌이는 선수들은 모두가 승자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그들은 42.195km의 105리 길을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쏟아 부으며 달려왔다. 그리고 마지막 마른 수건에서 또 물을 짜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완주하면 몸무게가 3~4kg이 빠진다.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뼈와 가죽만 남는다. 뼈와 가죽만 남은 그 몸으로 마지막 승부를 벌이다니! 마라톤 트랙게임은 ‘영혼의 게임’이다.

2

한국 마라톤
2시간 7분대 진입

선수 생활을 계속한 이봉주는 1998년 4월 19일 네덜란드 로테르담마라톤에 참가해 2시간 7분 44초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2위를 차지했다. 비록 1위를 스페인의 파비앙 론 체로(2시간 7분 27초)에게 아깝게 내줬지만 황영조의 기록보다 25초나 앞당긴 2시간 07분 44초의 한국신기록으로 2위를 했다. ‘마의 8분대’를 넘어 꿈에 그리던 7분대로 진입한 것이다.

2시간 7분 49초를 기록한 후배 김이용과 함께 한국 마라톤의 7분 시대를 활짝 연 것이다. 이봉주는 그해 겨울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의 금메달도 땀다. 1999년에는 전통을 자랑하던 코오롱 마라톤팀이 코칭스태프 개편 문제로 내부 갈등이 일어나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봉주의 선수 생활도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며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2000년 2월 도쿄마라톤에 참가한 이봉주는 2위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기록을 24초나 단축하며 2시간 7분 20초의 한국최고기록을 세워 그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알렸다. 섭씨 10도의 기온에 습도는 27퍼센트, 초속 3.5m의 바람을 등지고 요요기국립경기장을 참가해 오모리로 돌아오는 코스에서 펼쳐진 레이스는 시종 이봉주의 페이스대로 진행됐다.



1998년 로테르담마라톤에 참가해 역주하는 이봉주. 그는 이 대회에서 2시간 7분 44초를 작성해 꿈에 그리던 2시간 7분대에 진입하며 당시 한국 신기록으로 2위를 했다.

그는 스타트 총성과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하다 20km 지점에서 단독 선두로 나선 뒤 외로운 독주를 계속했다. 피니시라인을 1km 남기고 체력이 달려 케냐의 코스게이에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8초 차이로 2위에 머물렀지만 이봉주에겐 후회 없는 레이스였다.

그는 2000년 6월 창단한 삼성전자 육상경기단에 입단해 안정된 환경 속에서 훈련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대회 제패를 목표 삼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전지훈련을 가진 이봉주는 강한 자신감을 지니고 올림

역대 한국 남녀 마라톤 10걸

남자

순위	기록	성명	소속	생년월일	대회 순위	대회	날짜
1	2:07:20	이봉주	무소속	1970.10.11	2	도쿄국제	2000.2.13
2	2:07:49	김이용	코오롱	1973.9.20	4	로테르담	1999.4.18
3	2:08:09	황영조	코오롱	1970.3.22	4	보스턴	1994.4.19
4	2:08:34	김완기	코오롱	1968.7.08	2	동아국제	1994.3.20
5	2:08:43	지영준	코오롱	1981.10.15	2	동아서울국제	2003.3.16
6	2:08:49	백승도	한국전력공사	1968.6.16	5	도쿄국제	2000.2.13
7	2:09:30	김재룡	한국전력공사	1966.4.25	1	동아	1992.3.22
8	2:10:12	유영훈	한국전력공사	1972.2.27	5	동아국제	1994.3.20
9	2:10:19	허의구	제일제당	1960.1.1	4	동아	1992.3.22
10	2:10:37	형재영	한국조폐공사	1971.2.24	2	일본호후	1999.12.19

여자

순위	기록	성명	소속	생년월일	대회 순위	대회	날짜
1	2:26:12	권은주	무소속	1977.10.23	1	춘천국제	1997.10.26
2	2:26:17	이은정	충남도청	1981.4.21	1	서울국제	2004.3.14
3	2:27:48	이선영	안동시청		2	서울국제	2009.3.15
4	2:29:27	김성은	삼성전자		5	서울국제	2010.3.20
5	2:29:44	오미자	익산시청	1970.7.3	1	전주군산	2000.4.9
6	2:30:19	최경희	경기도청	1981.9.13	4	서울국제	2004.3.14
7	2:30:50	정윤희	서울도시개발공사	1983.1.3	1	중앙서울	2003.11.2
8	2:31:38	채은희	코오롱	1982.07.20	2	중앙서울	2003.11.2
9	2:31:41	오정희	삼성전자	1978.12.4	6	서울국제	2005.3.13
10	2:32:09	윤선숙	서울도시개발공사	1972.5.28	1	동아서울	2001.3.18

픽대회에 나갔다. 그에게 올림픽대회 마라톤에 금빛 기대를 거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시드니 올림픽대회는 남북한 동시 입장이라는 전례 없는 이벤트로 올림픽대회 운동사를 장식했다. 분단국으로 각자 선수단을 파견해 개막식에서 동시 입장을 한 것은 시드니 올림픽대회가 처음이었다. 한국은 46개의 메달이 걸린 육상경기에서 여자 포환던지기의 이명선과 남자 높이뛰기 이진

택에게 올림픽대회 사상 첫 필드종목 메달을 기대했다. 무엇보다 이봉주에겐 8년 만에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

시드니 올림픽대회 너무 컸던 금메달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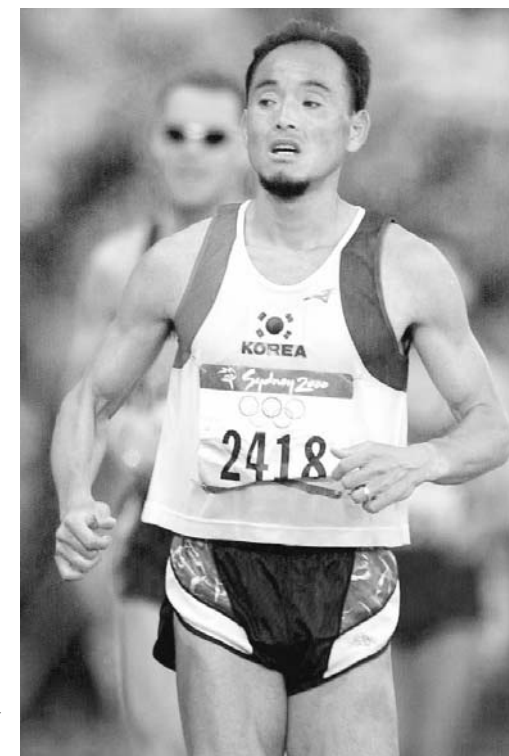
시드니 코스는 오르내리막이 심해서 힘든 코스였다. 결국 체력이 누가 더 강하느냐가 문제였다. 이봉주는 언덕이 많은 호주 나우라, 뉴질랜드 해밀턴 등을 오가며 강철 같은 몸을 만들었다. 원래 체력엔 자신이 있는 데다가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으니 그만큼 자신감이 철철 넘쳤다. 오인환 감독도 “반드시 메달권에 들 것”이라며 큰소리를 쳤을 정도였다.

시드니 올림픽대회 마지막 날인 2000년 10월 1일, 드디어 남자 마라톤 레이스가 시작됐다. 오 감독은 “40km 지점까지는 앞에 서지 마라. 그 이후에 승부를 걸어라. 급수대의 물통을 집을 때 다른 선수들 다리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고 마지막 작전 지시를 내렸다.

이봉주는 5km 지점을 선두 그룹 27명과 함께 3위(15분 36초)로 통과했다. 10km 지점은 31분 23초로 우승을 차지했던 에티오피아의 아베라와 2위로 പി니시한 케냐의 와이나이와 함께 10위로 지났다. 15km 지점은 역시 와이나이와 5위를 차지한 이탈리아 레오네와 함께 7위로 통과했다. 작전대로 선두 그룹을 유지하며 순조롭게 달렸던 것이다.

20km를 800m 앞둔 19.2km 지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봉주 바로 앞에서 달리던 케냐의 유망주 체루이요트 케네스가 그만 넘어져 버린 것이다. 자연히 뒤따르던 이봉주도 케네스에게 걸려 그만 아스팔트 위에 나뒹굴었다. 케네스는 20km 지점의 급수대에 있는 물통을 빨리 집기 위해 무리하게 길가 쪽으로 파고들다가 넘어졌던 것이다.

원래 급수대가 가까워지면 선수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다툼이



▲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남북한 선수단이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흔들며 동시 입장하고 있다.

▼ 시드니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어이없는 사고로 넘어져 부상을 당한 뒤 선두권에서 멀어져 힘겨운 레이스를 마친 이봉주.



시드니 올림픽대회 남자 마라톤 경기가 끝난 뒤 이봉주(오른쪽)가 북한의 김정원과 만나 서로 격려하고 있다.

치열하다. 현재 달리고 있는 자신의 속도(보통 100m 평균 18초대)를 유지하며 물통을 집어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속 100km로 가던 자동차가 속도를 시속 20km대로 줄였다가 다시 100km대로 높여 간다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진다. 가능하면 시속 100km대로 계속 달리는 것이 가장 좋다.

마라톤 선수들도 마찬가지. 속도를 유지하며 물통을 집고, 달리는 속도 그대로 물을 마셔야 경쟁 선수보다 한 발 빨리 나갈 수 있다. 만약 급수대에서 떨어진 바깥쪽에서 달리다가 길가 급수대의 물통을 집으려면 다른 선수들이 물통을 집을 때까지 종종거리며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달리면 되지 않느냐고? 그건 자유다. 그렇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30km 이후에 근육

에 경련이 오기 쉽다. 심장에 무리가 와서 더 이상 뛰지 못할 수도 있다.

마라톤에선 음료수공급소가 5, 10, 15km……식으로 5km 지점마다 모두 8군데가 있다. 물을 집을 때마다 20초씩 늦어지면 총 160초 즉 2분 40초가 늦어지게 된다. 우승권은 물론 한참 뒤쪽에 처지게 되는 것이다. 선수들의 속도감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음료수 공급소에서 한번 속도감을 잃으면 그 이후부터는 호흡이 엉망이 된다. 더구나 이봉주처럼 넘어진 경우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이 사고로 케네스는 조금 더 달리다가 그만 중도 포기해 버렸다. 이봉주는 아스팔트에 한 바퀴 뒹굴면서 오른쪽 손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왼쪽 골반도 다쳤다. 이봉주가 아스팔트에서 일어나 보니 선두권은 벌써 20~30m 앞서 가고 있었다. 더구나 선두권 선수들은 속도를 한창 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다시 처음부터 속도를 올려야 했다. 선두권 선수들이 4단 기어로 달리는 자동차라면 이봉주는 막 시동을 걸어 1단 기어로 달리는 자동차였던 것이다.

이봉주는 20km 지점을 36위로 통과했다. 선두권은 저만치 앞서 가고 있었다. 내심 우승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다. 하지만 이봉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다. 25km 지점 33위, 하프 지점(21.0975km) 37위, 30km 지점 29위, 35km 지점 28위, 40km 지점 25위로 통과하더니 결국 2시간 17분 57초의 기록(24위)으로 피니시라인에 들어왔다.

다음 날 저녁 이봉주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시드니공항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아무 말이 없었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아무 변명이 없었다. 숙소 에 오자마자 훈련복으로 갈아 입고 묵묵히 트랙을 달릴 뿐이었다.

마라톤 이외 종목의 결과도 참담했다. 높이뛰기의 이진택과 여자 포환던지기 의 이명선은 예선 탈락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렸다. 김미정이 여자 경보 20km에서 1시간 36분 9초로 종전 한국기록을 2분 28초나 단축하며 참가 선수 57명 가운데 25위로 들어온 것이 위안거리였다.

스타 제조기 정봉수 감독

51년 만에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 쾌거

이봉주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한국 신기록을 세운 지 1년 2개월이 지난 2001년 4월 17일 제105회 보스턴마라톤에 참가해 2시간 9분 43초로 대망의 월계관을 썼다.

보스턴마라톤 1위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4월 제54회 대회에서 함기용이 우승한 이후 무려 51년 만의 쾌거였다. 이봉주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우승으로 아시아경기대회 2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2004년 동아국제마라톤에서 2시간 8분 15초의 수준급 기록을 세워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이봉주의 달리기는 계속됐다. 그가 37세 되던 2007년 3월 18일 동아국제마라톤에서 2시간 8분 04초로 우승할 때까지 4년간 한국 선수 중 2시간 8분대에 진입한 선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 이봉주의 투혼은 위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세계 정상급 마라톤 선수로 이봉주만큼 선수 생명이 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동갑내기인 황영조는 은퇴한 지 오래고 세계 무대에서 이봉주와 겨룬 다른 나라의 유명 선수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2009년까지 역대 1위(2시간 7분 20초)와 2위(2시간 7분 44초)는 이봉주 자신의 기록이고, 3위는 김이용이 1999년 로테르담마라톤에서 기록한 2시간 7분 49초다.

정봉수 감독(1935~2001)은 손기정 이후 침체됐던 한국 마라톤을 끌어올린 명장이다. 황영조, 이봉주, 김완기도 그가 키워 냈다. 이봉주가 눈을 뜬 것도 1994년 당시 정봉수 감독이 이끄는 코오롱에 입단하면서부터다. 그 이전까지 이봉주는 마라톤 8번 완주에 신기록 2시간 10분 27초에 불과했다.

우승도 1993년 12월에 있었던 호놀룰루국제마라톤대회(2시간 13분 16초)가 고작이었다. 그 대회를 우승한 뒤 곧바로 정봉수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년부터 코오롱 유니폼을 입은 것이다. 마침 오인환 코치가 거의 같은 시기에 부임했다. 결국 이들은 이때부터 입단 동기이자 사제지간으로서 이봉주가 은퇴할 때까지 끈끈한 인연을 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개띠 띠동갑으로 오 코치가 열두 살 위였다.

‘한국 마라톤의 대부’였던 정봉수 감독은 성격이 불같았다. 선수들은 정 감독을 ‘독사 조련사’라고 부르며 그의 말이라면 꼼짝 못했다. 정 감독은 태극마크 한번 달아 보지 못한 무명 단거리 선수 출신이다. 한국전쟁 때인 1953년 군에 입대해 장기하사로 근무하며 육군 원호단(상무 육상경기팀) 감독을 역임했다.

1987년 코오롱 마라톤팀 창단 감독이 된 이래 김완기, 황영조, 이봉주를 발굴해 2시간 12분대에 머물던 한국 마라톤을 2시간 7분 20초로 끌어올렸다. 이어 황영조의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제패와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 제패, 이봉주의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2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우승,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우승을 빚어냈다.

24시간 마라톤밖에 모르던 사람

정 감독은 24시간 내내 마라톤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마라톤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에게 선수들은 자식이나 똑 같았다. 단 1분 1초도 선수들과 떨어지지 않았다. 선수들과 늘 숙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잤다. 선수 개개인의 성격, 취미, 잠버릇에서부터 뭘 잘 먹고, 잘 안 먹는 것까지 살살이 꿰고 있었다. 선수들 눈빛만 봐도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챌 정도였다.

결국 이것이 1996년 황영조가 은퇴하게 된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훗날 이봉주가 팀을 뛰쳐나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나이 서른이 됐는데도 일일이 간섭을 받는 것에 그는 숨 막힐 듯 답답해했다. 혈기왕성한 선수들과 정 감독의 궁합이 잘 맞지 않은 것이다. 기자들이 간혹 정 감독에게 “감독이 지나치게 다 큰 선수들의 사생활까지 참견하는 게 아닌가?”하고 물으면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마라톤이란 남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한가한 운동이 아니다. 하루를 놀면 원래 수준까지 가기 위해 일주일 강훈련을 해야 한다. 나도 다 큰 선수들에게 독종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선수들을 24시간 관리하지 않으면 선수들의 경기력이 푹 떨어진다. 그래서 난 선수들이 잠자리에 드는 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잘 수가 있다.”



정봉수 감독과 권은주, 이봉주, 김이용(왼쪽부터) 등이 1999년 4월 런던마라톤과 로테르담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정 감독은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 선수라도 연습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마라톤 천재 황영조도 상상을 초월하는 강훈련을 견뎌내야 했다. 황영조는 후에 “훈련 중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바퀴 밑으로 뛰어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봉주의 성실성에 내심 흡족해했다. 평소 기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칭찬을 많이 했다.

“훈련에 임하는 이봉주를 보면 나는 아주 흡족하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불만이 거의 없다. 훈련 자체를 즐거워하는 걸 보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 때는 꽃을 피울 것 같다. 또한 코오롱에 입단한 후배 김이용이 함께 훈련을 하니 이봉주도 한결 든든하리라 생각한다. 김이용은 1996년 동아마라톤에서 건국대생 신분으로 황영조를 꺾고 3위에 입상한 실력파다.”

기록의 산실 동아마라톤대회

정 감독의 ‘마라톤 지도자론’은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굴의 정신력이다. 둘째, 교과서대로 지도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각 선수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지도자는 선수에게 절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정 감독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1996년 황영조가 은퇴하고 1999년 이봉주가 자신의 품을 떠났을 때였다. 자식 같은 선수를 잃는다는 허탈감에 건강도 무척 나빠졌다. 하지만 그때도 정 감독은 겉으로는 담담했다. “또 키우면 되지 뭐.” 그 말뿐이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을 뽑아 신발 끈을 다시 조였다.

하지만 성에 찰 리 없었다. “쫓쫓 정말 큰일이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황영조나 이봉주 같은 선수들이 안 보여. 어떻게 쏘아 올린 한국 마라톤인데…….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를 제패했으니 이제 남은 건 세계 신기록이야. 정말 그거 한번 하고 눈을 감고 싶은데…….”

정 감독은 2001년 7월 5일 오랫동안 시달려온 당뇨와 간염으로 눈을 감았다. 제자 황영조는 “선수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지도자 생활을 하다 보니 (정) 감독님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다. 부모를 잃은 자식의 심정이다. 선수 때는 특유의 강도 높은 훈련이 너무 힘들어 도망치기도 하고 반발했지만, 그분이야말로 마라톤밖에 모르는 진정한 한국 마라톤의 대부였다.”고 말했다.

마침 캐나다 애드먼턴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막 출발하려던 이봉주도 빈소에 들러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면목이 없다. 나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들었는데 정말 죄송하다. 정 감독님은 무명인 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 내가 서른이 넘도록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감독님한테서 배운 마라톤에 대한 끝없는 집념과 열정 때문이다.”

국내 마라톤대회에서 한국기록이 가장 많이 나온 대회는 동아마라톤이다. 마라톤 대회를 시작한 1964년 이후 무려 10개의 한국기록이 이 대회에서 나왔다. 이 시기에 나온 한국기록 19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나머지는 조선신궁대회 4회, 전국선수권대회(1991년부터 조선일보춘천마라톤 대회와 함께 열림) 3회, 보스턴마라톤대회 2회, 전국체육대회 2회, 조선선수권대회, 인천~서울 국제대회, 도쿄 올림픽대회 예선, 교토마라톤, 벳푸~오이타 마라톤, 로테르담마라톤, 도쿄마라톤 등에서 각각 1회씩이다.

동아마라톤대회 최고기록 작성자는 1965년 이명정(2시간 21분 21초 6)을 필두로 1965년 김복래(2시간 19분 07초), 1970년 김차환(2시간 17분 34초 4), 1973년 김차환(2시간 17분 01초), 1974년 문홍주(2시간 16분 15초), 1984년 이홍렬(2시간 14분 59초), 1986년 유재성(2시간 14분 06초), 1987년 이종희(2시간 12분 21초), 1990년 김완기(2시간 11분 34초), 1992년 김재룡(2시간 9분 30초), 1994년 김완기(2시간 8분 34초) 등이다.

첫 동아마라톤은 1931년 3월 21일,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과 함께 대망의 레이스가 펼쳐졌다. 서울~영등포를 왕복하는 14마일 반(23.2km)의 마라톤 레이

스대회, 고려육상경기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 조선체육회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 대회가 바로 동아마라톤의 효시인 ‘제1회 마라손 레이스대회’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앞을 떠나 태평통, 숭례문, 한강철교, 노량진, 영등포역을 거쳐 같은 길로 되돌아오는 코스였다.

첫 우승자는 양정고보 김은배

14명의 참가자 중 첫 우승의 영광은 양정고보의 간판 김은배에게 돌아갔다. 기록은 1시간 22분 05초. 2위도 양정고보의 유해봉으로 1시간 26분 22초. 당시 최강이라 했던 이성근(백마구락부)은 1시간 27분 22초로 3위에 그쳤다.

제2회 대회는 1932년 3월 21일 29명이 참가해 경성의 변용환(총독부)이 1시간 21분 54초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다. 신의주에서 원정 온 20세의 신에 손기정은 1시간 25분 25초를 마크해 서울 장안의 철도국, 체신국 맹장들을 물리치고 2위에 올랐다. 3위는 백규복(철도국).

제3회 대회는 1933년 3월 21일 광화문~청량리~망우리를 돌아오는 경춘가도 15마일 새 코스에서 치러졌다. 35명의 건각 중 2회 대회 2위였던 양정고보의 손기정이 맹장 유해봉과 끝까지 접전을 펼치다 마지막 스포트에서 유해봉을 따돌리고 대망의 첫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기록은 1시간 24분 30초로 구간 신기록. 유해봉은 손기정보다 27초 늦은 1시간 24분 30초. 3위는 남승룡으로 1시간 26분 46초.

손기정은 이듬해 1934년 3월 21일 열린 제4회 대회에서 1시간 20분 34초의 유장춘에게 25초 차로 1위를 내줬다. 1936년 4월 4일 열린 제6회 대회에서는 철도국의 오동우가 1시간 20분 11초로 우승했고, 2위는 1시간 20분 40초를 기록한 이종록에게 돌아갔다. 이종록은 이듬해 1937년 3월 21일 열린 제7회 대회에서 1시간 31분 45초의 기록으로 기어코 1위를 차지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9세



- ◀ 동아마라톤의 모태가 된 제1회 경영(서울~영등포) 마라톤대회를 알리는 동아일보 1931년 3월 22일자 기사. 양정고보의 김은배가 우승했다는 기사 제목이 뽐혀 있다.
- ▶ 1937년 제7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이종록. 그의 우승 소식은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가 무기정간 처분을 당해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로 배재고보에 재학 중이었다. 이 대회는 전년도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사진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가 총독부로부터 무기정간 처분을 당한 상태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모든 기록이 지상에 실리지 못한 채 묻혀 있었으나 이종록의 유족들에 의해 빛을 보게 됐다.

1940년 제11회 대회는 3월 21일 42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인천의 현정효가 1시간 29분 18초 2로 2위 김국배를 2분여 앞서 우승했다. 이후 일제

의 언론 탄압이 심해지고 체육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회가 다시 중단돼 14년간의 긴 휴식에 들어가야만 했다.

경영 로드 레이스에서 1964년부터 정식 마라톤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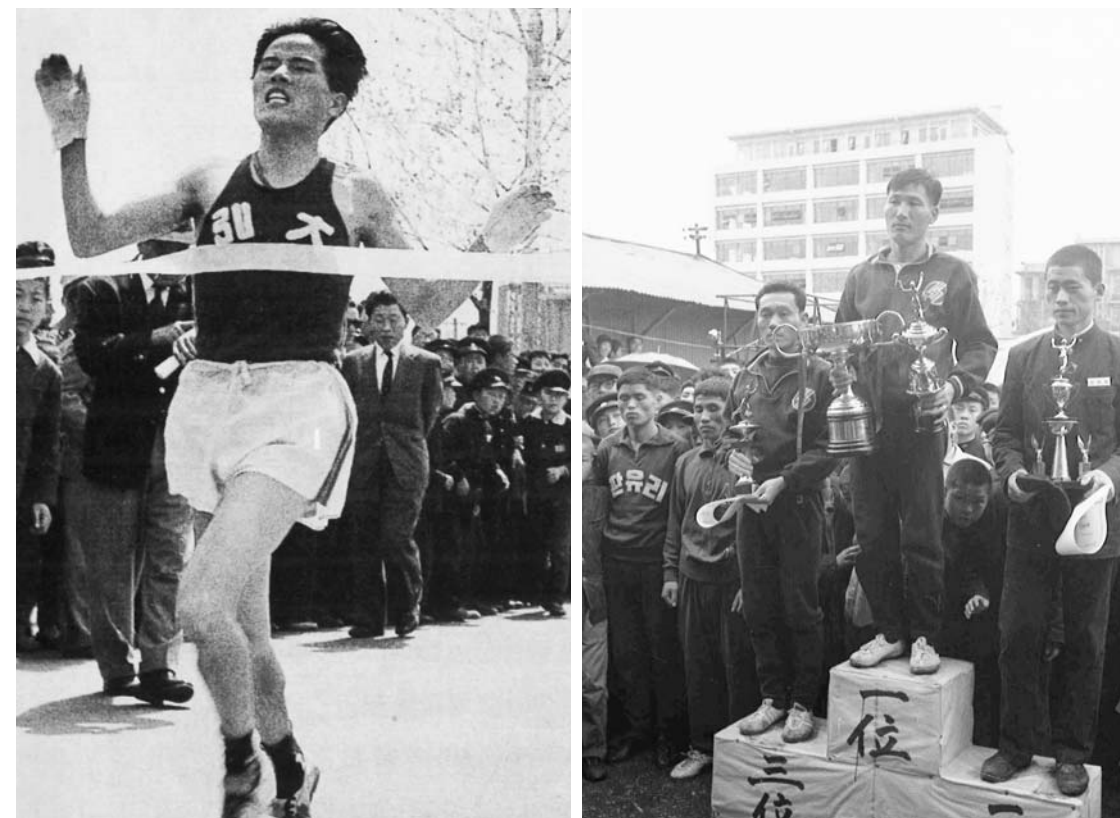
1954년 동아일보는 1947년과 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제패를 기념하는 뜻에서 경영(서울~영등포) 로드 레이스 마라톤을 14년 만에 부활시켰다. 바로 제25회 대회였다. 4월 18일 70명의 건각은 1위부터 10위까지 종전 기록을 돌파하는 좋은 기록을 작성했다. 1위는 신홍대(경희대의 전신) 임종우로 1시간 23분 43초, 2위 장홍석, 3위 이기환 등 순이었다. 이때부터는 서울육상경기연맹이 공동 주최했다.

1956년 4월 23일 열린 제27회 대회는 한승철(해병대), 이창훈(양정고), 임종우가 치열한 삼파전을 벌인 끝에 3위까지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 우승자인 한승철의 기록은 1시간 21분 42초. 1957년 4월 21일 열린 제28회 대회에서 이창훈은 초반부터 역주를 거듭해 1시간 20분 28초의 대회신기록으로 들어왔다. 2위는 한태봉, 3위는 이영희.

1958년 4월 20일 열린 제29회 대회의 1위는 신예 오천택(홍익대)으로 1시간 21분 15초. 2위는 정천권, 3위는 채정진. 1959년 제30회 대회에서는 단신의 이상철(홍익대)이 1시간 20분 12초로 1위를 했다.

1961년 제32회 대회에서는 양정고를 거쳐 홍익대에 진학한 새내기 강용태가 선배 이상철을 2위로 밀어내고 최초로 1시간 20분 벽을 돌파한 1시간 19분 55초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1963년 4월 20일 열린 제34회 대회에서는 1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인 김복래(춘천농고)가 1시간 21분 53초의 다소 처지는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강희규, 차대만이 들어왔다. 74명의 완주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피니시한 유



◀ 1959년 제30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1위로 들어오는 이상철.

▶ 1964년 제35회 대회 시상대에 오른 이창훈(1위), 이명정(2위), 한재덕(3위). 이 대회부터 동아마라톤은 42.195km 코스에서 치러졌다.

정채는 53세의 고령으로 노익장을 과시해 감투상을 받았다.

1964년 제35회 대회 때부터 경영 로드 레이스를 정식 마라톤 코스(42.195km)로 바꾸고 명칭 또한 동아마라톤대회로 개칭했다. 4월 19일 광화문을 스타트해 경인가도에서 펼쳐진 레이스에서 백전노장 이창훈(한전)은 2시간 27분 13초 8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18세의 신예 이명정(한전)은 1965년에 열린 제36회 대회에서 2시간 21분 21

초 6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해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2위인 무명 유명중(춘천농고)은 당시 한국기록(2시간 21분 25초)에 0.6초 모자라는 아까운 기록으로 2위에 그쳤으나 기대주로 떠올랐다. 1963년과 1964년 한국기록을 거푸 경신했던 이상훈(한전)은 3위에 머물렀다.

1966년 3월 13일 동아일보~소사 농촌진흥청 앞 왕복 코스에서 벌어진 제37회 대회에서 김복래(석탄공사)는 2시간 19분 07초의 대기록을 수립하며 이 대회 신기록(이명정)은 물론 그가 갖고 있던 한국기록(2시간 20분 19초 2)를 한꺼번에 깨뜨리며 숙원의 20분 벽을 돌파했다.

1970년 외국 선수 초청 국제대회로 발전

동아일보 창간 50주년을 맞은 1970년, 동아마라톤대회는 처음으로 외국 선수를 초청해 국제대회로 발전했다. 외국 초청 선수는 캐나다의 윌링포드와 일본의 가네유키, 요네시게 등 3명. 서울운동장~의정부 왕복의 평탄한 코스로 기록 단축의 전기를 만들었다. 참가 선수는 34명. 김차환(한전)은 일본 선수를 막판에 따돌리고 40km 지점 이후에 스피트해 2시간 17분 34초 4의 한국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2위 송금룡, 3위 조재형(한일은행)도 2시간 20분 안에 들어와 한국 마라톤의 희망을 부풀게 했다.

제43회 대회에서는 제41회 우승자 김차환이 2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그는 2시간 19분 34초에 그쳐 자신의 최고기록에 2분 뒤떨어지는 후퇴를 보였다. 2위는 박봉근으로 24분대, 3위 박창렬은 29분대였다. 그러나 1973년 제44회 대회에서 김차환은 3년 전 작성한 자신의 한국 신기록(2시간 17분 34초 4)을 훌쩍 뛰어넘는 2시간 17분 01초로 그의 세 번째 우승을 장식했다.

제45회 대회는 종암동~주내역을 왕복하는 새 코스에서 열려 문홍주가 2시간 16분 15초의 기록으로 국내 최초의 16분대 진입에 성공했다. 문홍주는 1975



1979년 제50회 동아마라톤대회부터 신설된 여자부에선 문기숙이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년 제46회 대회에서도 2시간 21분 09초 6으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이뤘다.

1977년 제48회 대회에서 동아마라톤대회 사상 처음으로 우승의 명예가 외국 선수에게 넘어갔다. 우승자는 일본의 마쓰다로 기록은 2시간 18분 40초였다.

한편 제50회 대회부터 여자부를 신설해 여자 10km에는 문기숙이 우승했고 남자 고교 10km에서는 정만화가 1위에 올랐다.

1982년 제53회 대회는 3월 28일 KBS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마라톤과 함께 열렸다. 모두 21개국에서 40명의 외국 선수가 초청됐으며, 여기에는 탄자니아의 마송, 미국의 빌 로저스, 뉴질랜드의 앨리슨 로 등이 참가했다. 총 참가 선수는 국내 마스터스 부문을 포함해 7426명으로 경기 결과 남자부 3위까지는 외국 선수의 차지였다. 한국 대표 김종윤(육군3사관학교)은 2시간 16분 58초로 4위(국



▲ 1994년 동아국제마라톤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한 내외국인 선수들이 경주 부문단지를 돌아 피니시라인을 향해 달리고 있다

▼ 1990년 제59회 동아마라톤에서 여자 선수들이 스타트와 함께 스타디움 트랙을 돌고 있다. 이 대회에서 이미옥(선두)은 1988년 이후 내리 3연패를 했다.

내 1위)에 그쳤다. 1위 로리 위티(호주)는 2시간 14분 33초, 2위 마송, 3위 페르손(스웨덴)은 15분대였다. 여자부도 우승자인 앨리슨 로를 비롯해 4위까지 모두 외국 선수였고 한국의 안춘자가 3시간 01분 50초로 5위(국내 1위)를 마크했다.

1984년의 제55회 대회에서는 이흥렬(경희대)이 10년 숙원이었던 ‘마의 15분 벽’을 무너뜨리고 2시간 14분 59초의 한국최고기록으로 두 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그는 마라톤 훈련기금 5000만 원을 비롯해 후원금 400여만 원을 받는 행운을 얻었다. 2위 채홍락도 2시간 15분 16초의 한국최고기록. 3위는 김원식. 여자부 1위 임은주는 2시간 39분 48초로 제54회 대회에 이어 2연패를 이뤘다.

1985년 제56회 대회에선 13분대 기록에 다시 상금 7000만 원이 걸렸다. 유재성(한국체대)이 혼신의 힘을 다해 도전했으나 50초 차로 기록 경신에 실패했다. 유재성의 우승 기록은 2시간 15분 48초. 2위 허의구(제일제당)는 16분대, 3위 반영만(진로)은 18분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줬다. 여자부에서는 임은주가 독주 끝에 2시간 45분 06초로 대망의 3연패를 달성했다.

서울 아시안경기대회를 앞둔 1986년 봄의 제57회 대회는 3위까지가 2시간 14분대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유재성은 2시간 14분 06초로 이흥렬이 세운 종전 기록을 53초 단축하고 2연패를 이루는 기염을 토했다. 그를 뒤쫓던 정만화(건국대)와 반영만도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유재성이 7초 차이로 13분대 진입에 실패했으나 5위까지 15분대를 기록할 만큼 선수층이 두꺼워졌다. 당시 세계 기록은 포르투갈의 카를로스 로페스가 세운 2시간 7분 12초였고 일본은 나카야마가 8분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여자부에서는 김미경(한전·2시간 40분 41초)이 임은주의 아성을 깨고 우승했다.

1987년 3월에 열린 제58회 대회에선 마침내 2시간 12분대 진입의 염원이 이뤄졌다. 이종희(제일제당)는 이 레이스에서 팀 동료 허의구, 건국대의 김원탁과 함께 기록 경쟁을 벌인 끝에 2시간 12분 21초의 한국최고기록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대회는 5위까지 한국기록을 세우는 사상 초유의 대성과를 거뒀다. 여

자부 우승은 안영옥(제일제당)에게 돌아갔다. 기록은 2시간 41분 50초.

1990년 마라톤 코스에 처음 도전한 김완기(코오롱)는 제61회 대회에서 한국 기록을 3년 만에 47초 앞당기며 처음으로 12분 벽을 넘어섰다. 2위 김원탁, 3위 허의구도 11분대 진입에 성공했다. 김완기는 피니시라인을 앞두고 4번이나 선두를 주고받으며 마지막 300m를 남겨 놓고 추월에 성공해 2시간 11분 34초로 우승했다. 여자부에서는 이미옥이 1988년 이후 내리 3연패했다. 기록은 2시간 37분 16초.

1991년의 제62회 레이스는 김재룡(한전)이라는 새 스타를 탄생시켰다. 기록은 2시간 12분 34초로 다시 1분 후퇴해 마의 10분 벽을 넘는 데 실패했지만 2위 이창우(코오롱), 3위 황영조(코오롱) 역시 12분대의 좋은 기록을 땀으로써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을 받은 신인은 단연 황영조였다. 이 대회의 1위와 2, 3위의 기록은 1초 차로 박빙의 명승부가 연출됐다. 여자부에서는 이미옥이 2시간 41분 43초로 대회 4연패에 성공했다.

1992년의 제63회 레이스는 춘천 의암호 순환 코스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국내 첫 9분대 진입이라는 열매를 거뒀다. 김재룡과 김완기는 각각 2시간 9분 30초와 31초의 1초 차 승부로 1, 2위를 차지했다. 4위까지 11분대의 대회신기록. 김재룡, 김완기는 한국기록(2시간 08분 47초) 보유자인 황영조와 함께 그해 8월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 참가했다. 여자부에서는 이미옥(2시간 36분 44초)이 5연패의 위업을 일궈 냈다.

1993년 제64회 동아마라톤대회는 춘천에서 다시 경주로 코스를 옮겼다. 첫 경주 대회에서 김완기가 대회신기록이자 국내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3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기록은 2시간 9분 25초. 후반 경쟁자가 없어 더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다. 2위 형재영은 12분대, 3위 허의구는 13분대. 여자부에서는 정영임(코오롱·2시간 45분 52초)이 처음 우승했다.



스페인의 마르틴 피즈가 1996년 동아국제마라톤에서 혼신의 막판 스퍼트 끝에 1위로 뛰어들고 있다. 그 뒤는 1초 차로 2위를 차지한 이봉주.

동아국제마라톤의 1초 차 승부

1994년의 제65회 대회부터 동아마라톤은 국제 규모의 대회로 승격했다. 1994년 동아국제마라톤대회 겸 제65회 동아마라톤대회에는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마크 플라체스(미국)를 비롯해 베를린마라톤 우승자 호릴리 야와(남아공) 등 세계적 선수들을 대거 초청해 12개국 97명이 참가했다. 경기 결과 마누엘 마티아스(포르투갈)가 2시간 8분 33초로 김완기(코오롱)를 1초 차로 앞서 우승했다. 김완기는 한국최고기록을 작성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여자부에서는 이미경(코오롱)이 2시간 35분 44초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마스터스 부문(하프코스)이 신설돼 172명이 참가했다.

1996년 동아국제마라톤대회에서는 시즌 세계최고기록 수립이라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1995년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우승자 마르틴 피즈(스페인)와 이봉주가 1초 차로 1, 2위를 가리는 명승부를 펼쳤다. 이봉주는 2시간 8분 26초(대회신)로 한걸음 뒤져 우승을 내주고 말았다.

김완기, 김이용(건국대)이 각각 4, 5위를 마크했다. 이 대회 국내 상위 3명인 이봉주, 김완기, 김이용은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 참가했다. 국내 대회 여자부에서는 오미자(쌍방울)가 2시간 30분 9초로 9년 만에 한국기록을 갈아 치웠다.

1999년 3월 21일 열린 제70회 대회는 마스터스 부문에 한국 스포츠 사상 단일 종목 대회로는 처음으로 참가자가 1만 명을 돌파해 1만 1303명(마라톤 1413명, 하프마라톤 1576명, 10km 3314명, 5km 5000명)이 뛰었다. 남자 83명, 여자 22명이 참가한 등록 선수 부문에서는 형재영(조폐공사)이 2시간 11분 34초로 남자부 1위로 피니시했고 오성근(코오롱·2시간 12분 00초)과 장기식(한전·2시간 13분 28초)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오정희(코오롱)가 2시간 35분 11초로 우승했고 윤선숙(도시개발공사·2시간 41분 58초)과 박용애(구미시청·2시간 42분 18초)가 뒤이어 피니시했다.

2000년에 동아일보 창간 80주년을 기념해 코스를 서울로 옮겼고 3년 만에 국제대회가 부활됐다. 2000년 3월 19일 오전 10시 광화문 동아일보~잠실주경기장 코스에서 펼쳐진 이 대회는 199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한 스페인의 아벨 안톤 등 67명의 등록 선수가 참가했으나, 21세의 신예 정남균(한국체대)이 뜻밖의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기록은 2시간 11분 29초. 2위는 스페인의 디에고 가르시아(2시간 11분 48초)였다. 15명의 국내 선수가 참가한 여자부에서는 박고은(한국수자원공사)이 종반 오미자(익산시청)를 추월해 2시간 33분 6초로 우승했다.

2001년에는 한국, 일본,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참가한 여자부에서 한국의 윤선숙(도시개발공사)이 2시간 32분 9초로 1위에 올랐으며 에티오피아의 아베바

톨라는 2시간 32분 58초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마라톤 사상 첫 한·중·일 중계

해를 넘겨 3월 17일 열린 2002년 동아서울국제마라톤대회는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기념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대표 등 국내외 109명(남 88명, 여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자부에서는 아시아기록(2시간 06분 51초) 보유자인 일본의 후지타 아쓰시가 2시간 11분 22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여자부에서는 중국의 웨이야난이 2시간 25분 06초의 기록으로 국내 개최 대회 여자부 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들어왔다. 이 대회는 한국 마라톤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아사히TV와 중국 CCTV 등 외국 방송사가 실황을 중계했다. 마스터스 부문은 마라톤코스에만 1만 2075명(남 1만1371명, 여 704명)이 참가해 제한시간 5시간 이내에 7317명(남 6971명, 여 346명)이 완주했다. 하프마라톤은 제72회 대회를 끝으로 폐지됐다.

3월 16일 봄비 속에 열린 2003년 동아서울국제마라톤 겸 제74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한국 마라톤의 차세대 유망주 지영준(코오롱)이 2시간 08분 43초를 기록해 남아공의 거트 타이스(2시간 8분 42초)에 이어 아깝게 2위에 머물렀다. 역대 국내 대회에서 2시간 8분대의 기록이 나오기는 1994년과 1996년 동아국제마라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3위는 케냐의 지미 무인디(2시간 08분 53초)가 했다.

여자부에서는 중국의 장수징이 2시간 23분 18초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해 모국의 대회 2연패를 이끌었다. 2위는 에티오피아의 위크네시 톨라(2시간 30분). 13개국 113명의 건각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 사상 처음으로 오전 8시에 스타트한 이 대회는 한국의 KBS, 중국의 CCTV, 일본의 도쿄TV가 중계에 참여해 2년 연속 3개국이 중계하는 아시아 유일의 마라톤 이벤트로 기록됐다.

또 남아공의 거트 타이스는 2004년 동아서울국제마라톤 겸 제75회 동아마라

톤대회에서 2시간 7분 6초로 우승했다.

한편 2004년 서울국제마라톤은 국내 처음으로 세계 10대 마라톤 반열에 올랐다. 당시 시즌 세계 130개 주요 마라톤 우승 기록 가운데 타이스의 서울국제 마라톤 기록이 6위(아시아 1위)를 차지한 것.

2005년 서울국제마라톤에선 윌리엄 김상(케냐)이 2시간 8분 53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006년 서울국제마라톤이자 제77회 동아마라톤에서는 2시간 19분 51초의 기록으로 중국의 저우춘슈가 여자부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는 당시 기록으로는 여자 마라톤 역대 세계 11위, 개인으로서는 역대 세계 8위이며 국내 여자 마라톤대회 사상 첫 2시간 20분 벽을 깬 신기록이었다. 또한 저우춘슈의 기록은 런던마라톤에서 디나 카스토(미국)가 세운 2시간 19분 36초에 이어 2006년 세계 2위 기록이다. 남자부에선 거트 타이스가 2시간 10분 40초로 우승했다. 타이스는 2003, 2004년 2연패와 함께 최근 4년간 3번이나 서울에서 월계관을 썼다.

여자 부문

횟수	우승자	소속	기록	연도	비고
54회	임은주	조폐공사	2:48:13	1983	마라톤 코스 첫 실시
55회	임은주	조폐공사	2:39:48	1984	대회기록
56회	임은주	조폐공사	2:45:06	1985	임은주 대회 3연패
57회	김미경	한국전력	2:40:41	1986	
58회	안영옥	제일제당	2:41:50	1987	
59회	이미옥	산업기지	2:33:14	1988	대회기록
60회	이미옥	수자원공사	2:39:27	1989	
61회	이미옥	수자원공사	2:37:16	1990	
62회	이미옥	수자원공사	2:41:43	1991	
63회	이미옥	수자원공사	2:36:44	1992	이미옥 대회 5연패
64회	정영임	코오롱	2:45:52	1993	
65회	이미경	코오롱	2:35:44	1994	
66회	이미경	코오롱	2:38:08	1995	
67회	오미자	쌍방울	2:30:09	1996	한국 신기록
68회	방선희	울산시청	2:43:40	1997	

횟수	우승자	소속	기록	연도	비고
69회	오미자	익산시청	2:37:16	1998	
70회	오정희	코오롱	2:35:11	1999	
71회	박고은	수자원공사	2:33:06	2000	
72회	윤선숙	도시개발공사	2:32:09	2001	첫 국제대회
73회	웨이야난	중국	2:25:06	2002	대회 신기록
74회	장수징	중국	2:23:18	2003	대회 신기록
75회	이은정	충남도청	2:26:17	2004	한국기록에 5초 차 접근
76회	저우춘슈	중국	2:23:24	2005	오정희 6위
77회	저우춘슈	중국	2:19:51	2006	임경희 2위
78회	웨이야난	중국	2:23:12	2007	채은희 6위
79회	장수징	중국	2:26:11	2008	이은정 4위
80회	구타	에티오피아	2:25:37	2009	이선영 2위
81회	코네나	에티오피아	2:24:13	2010	김성은 5위
82회	구타	에티오피아	2:26:51	2011	정윤희 3위
83회	보루	에티오피아	2:23:26	2012	김성은 4위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역대 우승자

남자 부문

횟수	우승자	소속	기록	연도	비고
1회	김은배	양정고보	1:22:05	1931	광화문~영등포 23.2km
2회	변용환	총독부	1:21:54	1932	손기정 2위
3회	손기정	양정고보	1:24:03	1933	광화문~망우리 24.0km
4회	유장춘	체신	1:20:34	1934	광화문~영등포 23.2km
5회	이태우	경북	1:22:43	1935	오동우 22초 차로 2위
6회	오동우	철도국	1:20:11	1936	손기정 올림픽 우승
7회	이종록	배재고보	1:34:45	1937	동아일보 정간 기간 중 개최
8회	사정상	대회를 개최하지 못함			
9회	유관홍	배재고보	1:29:09	1938	2위까지 대회신
10회	지영룡	배재고보	1:28:12	1939	정순명 2위
11회	현정효	인천	1:29:18.2	1940	"일제, 대회 중단 압력"
12회	동아일보	정간 등으로 24회까지 중단			
25회	임종우	신흥대	1:23:43	1954	10위까지 대회신
26회	임종우	신흥대	1:23:16	1955	임종우 대회 첫 2연패
27회	한승철	해병대	1:21:42	1956	이창훈 2위
28회	이창훈	양정고보	1:20:28	1957	대회신
29회	오천택	홍익대	1:21:15	1958	정천권 2위
30회	이상철	홍익대	1:20:12	1959	대회신
31회	차대만	중앙대	1:20:17	1960	대학세 강세
32회	강웅태	홍익대	1:19:55	1961	대회신
33회	한재덕	대한중석	1:18:54	1962	대회신
34회	김복래	춘천농고	1:21:53	1963	강화규 2위
35회	이창훈	한국전력	2:27:13.8	1964	대회를 마라톤코스로 변경
36회	이명정	한국전력	2:21:21.6	1965	한국 신기록
37회	김복래	석탄공사	2:19:07	1966	한국 신기록
38회	유명종	한국전력	2:19:44	1967	광화문~오류동 코스
39회	김복래	석탄공사	2:19:42.99	1968	마라톤 두 번째 우승
40회	송금룡	대한중석	2:20:28	1969	유명종 2위
41회	김차환	한국전력	2:17:34.4	1970	한국 신기록
42회	조재형	한일은행	2:19:15.8	1971	강명광 2위
43회	김차환	한국전력	2:19:34.2	1972	서울~의정부 코스
44회	김차환	한국전력	2:17:01	1973	한국 신기록
45회	문흥주	건국대	2:16:15	1974	한국 신기록
46회	문흥주	건국대	2:21:09.6	1975	황신연 2위
47회	박원근	조폐공사	2:18:20	1976	18세 박원근 첫 도전
48회	마쓰다	일본	2:18:40	1977	외국 선수 첫 우승

횟수	우승자	소속	기록	연도	비고
49회	박원근	조폐공사	2:19:15.8	1978	야마모토 2위
50회	마쓰사가	일본	2:17:18	1979	쓰치야마 2위
51회	사토 스무	일본	2:16:46	1980	배은환 2위
52회	이홍렬	진로	2:21:23.40	1981	203명 참가
53회	로리 워터	호주	2:14:33	1982	한강변 순환 코스
54회	채홍락	건국대	2:16:33	1983	잠실~성남 코스
55회	이홍렬	경희대	2:14:59	1984	2위까지 한국 신기록
56회	유재성	한국체대	2:15:48	1985	허익구 2위
57회	유재성	한국체대	2:14:06	1986	3위까지 한국 신기록
58회	이종희	제일제당	2:12:21	1987	5위까지 한국 신기록
59회	김원택	동양나일론	2:12:41	1988	한강변 코스에서 개최
60회	임정태	대구은행	2:15:18	1989	이경식 2위
61회	김완기	코오롱	2:11:34	1990	3위까지 한국 신기록
62회	김재룡	한전	2:12:34	1991	황영조 데뷔, 3위 입상
63회	김재룡	한전	2:09:30	1992	국내 코스 신기록
64회	김완기	코오롱	2:09:25	1993	국내 코스 신기록
65회	마르틴 피스	포르투갈	2:08:33	1994	김완기 한국 신기록
66회	이봉주	코오롱	2:10:58	1995	영국 네루카 2위
67회	마르틴 피스	스페인	2:08:25	1996	이봉주 1초 차로 2위
68회	아벨 안톤	스페인	2:12:37	1997	마스터스 1882명 참가
69회	김이용	코오롱	2:12:24	1998	마스터스 6931명 참가
70회	형재영	조폐공사	2:11:34	1999	마스터스 1만1303명 참가
71회	정남균	한국체대	2:11:29	2000	광화문~잠실 코스
72회	조시아 뱀베	남아공	2:11:49	2001	마스터스 1만786명 참가
73회	후타야쓰시	일본	2:11:22	2002	마스터스 1만2075명 참가
74회	거트 타이스	남아공	2:08:42	2003	지영준 1초 차 2위
75회	거트 타이스	남아공	2:07:06	2004	이봉주 5위
76회	윌리엄 킵상	케냐	2:08:53	2005	마스터스 2만1067명 참가
77회	거트 타이스	남아공	2:10:40	2006	지영준 4위
78회	이봉주	삼성	2:8:04	2007	국내코스 한국 최고기록
79회	코리르	케냐	2:07:32	2008	김이용 7위
80회	아루세이	케냐	2:07:54	2009	지영준 5위
81회	테이멧	케냐	2:06:49	2010	박영민 6위
82회	굼리	모로코	2:09:11	2011	정진혁 2위
83회	에루페	케냐	2:05:37	2012	정진혁 16위
84회	첵크워니	케냐	2:08:15	2013	정지훈 13위

5

마라톤 중흥을 이끈 대회들

조선일보 마라톤

손기정과 인연 깊은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조선일보 마라톤의 궤적은 곧 한국 마라톤의 역사였다. 그 기원은 나라 없던 시절,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36년 8월 9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올림픽스타디움. 마라톤 시상대 위에 두 명의 한국인이 섰다.

일본 대표로 참가해 금메달, 동메달을 딴 손기정과 남승룡이었다. 일장기가 올라가고 기미가요가 연주되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나라 없는 설움을 곱씹는 모습이었다. 2시간 29분 19초 2 올림픽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한 한국 마라톤의 영웅, 손기정의 당시 심정은 8월 11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국내로 전해졌다.

당시 조선일보의 김동진 도쿄지국장은 국내 언론사상 처음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손기정과 인터뷰를 했다. 우승한 다음날 전화가 연결되자 손기정은 “네! 손기정이에요.” 하는 한마디를 한 뒤 한참을 흐느꼈다고 한다. “이기고 나니까 웬 일인지 기쁘기보다 서러워만 저서 남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겼다고 자꾸만 저를 높여 준다니 그러지 않았으

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웬일인지 설움만 더 나고 가슴이 무거워집니다”라고 했다.

1936년 8월 10일 2면짜리 호외를 찍어 손기정과 남승룡의 쾌거를 전한 조선일보는 8월 11일자에도 큼지막한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다.

‘世界制覇(세계제패)한 英雄(영웅)의 가슴도/뜨거운 興奮(흥분) 식자
쓸쓸한 哀愁(애수)/마침내 優勝(우승)은 했으나 웬일인지 울고만 싶소
/電波(전파)에 흘러온 孫君(손군)의 第一聲(제일성).’

2개월 뒤인 10월 19일 조선일보는 본사 강당에서 손기정, 남승룡 선수의 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모임을 열어 조선일보가 제작한 상패를 전달했다. 당시 조선일보 운동부에는 고봉오 기자가 근무했다. 손기정과 고향이 같고 나이는 다섯 살 많은 그는 신의주고보 스케이트 선수 출신이었다.

고봉오는 손기정이 돈이 없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때면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다. 1938년 육상경기 선수 출신으로 체육교사를 하던 강복신을 손기정에게 소개해 백년가약을 맺도록 한 것도 그였다. 고봉오 기자가 1945년 10월 서울에서 사망하자 손기정은 그의 시신을 수습해 삼청동 인근에 안장했다고 한다. 당시 고봉오의 가족은 신의주에 살고 있었다.

1946년 대회 시작…1970년 마라톤코스로 전환

고봉오의 딸 고광희는 훗날 북한 평양의대 병상 코치로 1990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관전하러 중국 베이징에 들렀다가 한국선수단을 응원하던 손기정과 반갑게 해후했다. 이렇게 손기정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은 조선일보는 그의 베를린 올림픽대회 제패 10주년이 되는 1946년 마라톤대회를 만들었다.



권은주가 1997년 10월 26일 조선일보 춘천국제마라톤에서 2시간 26분 12초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그것이 조선일보 춘천마라톤의 시초였다. 조선일보는 광복 후 손기정, 권태하, 김은배, 남승룡 등 일제하에서 한국 마라톤을 이끈 인물들이 창설한 ‘조선마라손보급회’와 함께 마라톤 보급과 선수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 노력의 첫 결실이 1946년 10월 27일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과 우이동을 왕복하는 15마일 코스(약 24km)에서 열린 ‘제1회 조선일보 로드 레이스 마라톤대회’였다.

손기정에게서 코스 설명을 들은 45명의 참가자는 오후 2시 태평로를 스타트했다. 한양공업대학 코치이면서 애틀랜틱 구락부 소속 선수였던 서윤복이 1시간 29분 24초로 우승을 했다. 우승컵은 이승만, 김구 등이 기증했다. 서윤복은 이듬해 보스턴마라톤을 제패하는 쾌거를 이뤘다.

1947년 조선일보는 제1회 단축마라톤대회를 ‘제1회 손기정 세계제패기념 조

선일보마라톤대회’로 격상시켜 개최했다. 대회 날짜와 스타트 시간은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을 제패한 8월 9일 오후 3시였다. 태평로에서 오류동을 왕복하는 마라톤코스 구간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치러진 이 대회에 50명이 참가해 고려대생 홍종오가 2시간 57분 20초로 우승했다. 이후 1954년까지 코스와 거리가 바뀌고 한국전쟁으로 대회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지만 대회 날짜는 언제나 8월 9일이었다.

전쟁 직후인 1953년에는 대구 달성공원에서 대회를 열기도 했다. 대회가 완전히 틀을 갖춘 것은 태평로~노량진 구간(약 15km)으로 코스를 확정한 1955년이었다. 그 다음해인 1956년 우승한 이창훈(양정고)은 멜버른 올림픽대회에서 4위, 1958년 도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해 한국 마라톤 스타의 계보를 이었다. 당시 우승자는 손기정이 베를린에서 가져와 양정고에 심은 월계수 가지를 잘라 만든 관을 받았다.

대회는 1970년 ‘손기정배 쟁탈 조선일보 마라톤대회’로 이름을 바꿨다. 대회 개최일자도 10월 30일로 늦춰졌다. 8월 9일은 삼복더위로 좋은 기록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 8월 9일 단축 로드 레이스는 오후 4~5시에 열렸는데도 기권하는 선수가 허다했다.

공동우승 담합…한국마라톤 일깨워

1960년대 이후 한국 마라톤의 침체기가 계속됐다. 세계기록이 2시간 10분대에 진입했을 때 한국기록은 2시간 20분 벽도 넘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전국 마라톤선수권대회를 통합해 개최한 1974년부터 기록 포상금을 내걸고 선수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1981년 마라톤팀을 창단한 코오롱 회장 이동찬은 “2시간 10분 벽을 깨면 포상금 1억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다. 조선일보도 한국최고기록 우승

에 300만 원, 2시간 10분대 우승에 1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기록 경쟁에 불을 붙였다. 1984년 LA 올림픽대회에서 여자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비해 여자부 대회도 신설되었다. 당시 고덕중 2학년이던 이미옥을 포함해 8명의 여자 선수가 참가했고 임은주(조폐공사)가 우승했다.

그런데 한국 육상경기계를 뒤흔든 사건이 1982년 대회에서 터졌다. 선두로 달리던 선수 2명이 담합해 동시에 들어온 데다 공식 음료수 공급소가 아닌 주로에서 코치로부터 음료를 받아 마신 남녀 선수 5명의 기록이 몰수된 것이다. 서울 도봉구 창동 사거리~양주 덕정검문소 코스에서 열린 그 대회는 한국 마라톤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잠자는 마라톤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당시 같은 팀 소속으로 남자부 선두였던 C, J 선수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2시간 21분 8초의 기록으로 나란히 피니시라인에 들어왔다. 대한육상경기연맹과 조선일보는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해 기록을 인정치 않기로 했다. 또 다른 남자 L 선수와 여자부 A, C 선수가 주로에 뛰어든 코치 등으로부터 음료를 받아 마셨다는 이유로 실격됐다.

실격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좋았던 김주룡(건국대 · 2시간 22분 45초)과 13세의 이영미(평택 오성중 1학년 · 3시간 8분 31초)에게 우승 트로피가 돌아간 뒤, 손기정은 피를 토하며 외쳤다.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모두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당신네들은 지금 모든 국민이 뭘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알 것이오. 마라톤 사상 유례 없는 동시 피니시란 세계신 기록을 바란 것은 결코 아니오. 나는 나라를 잃은 몸으로 세계를 제패했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조국을 찾기도 더 좋은 기록을 못 내고 불미한 행동을 취합니까. 주최 측이 돈을 벌자고 이 대회를 치르는 것입니까? 기록을 경신해서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반성하십시오.”

시상식장 분위기를 숙연케 만든 손기정의 눈물은 깊은 잠에 빠진 한국 마라톤을 깨우는 계기가 됐다. 1984년 이홍렬(경희대)이 2시간 14분 59초로 10년 묵은 한국기록을 깨뜨렸고, 좀처럼 2시간 20분 벽을 넘지 못하던 조선일보 마라톤 기록도 해마다 1~2분씩 단축됐다.

춘천에서 시작된 ‘가을의 전설’

조선일보 마라톤은 1947년 보스턴마라톤 우승자인 서윤복을 시작으로 술한 스타를 배출했다. 1956년 양정고 학생으로 조선일보 대회를 제패한 이창훈은 2년 뒤 도쿄 아시아경기대회를 정복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마라톤 제2의 전성기’ 시작을 알린 김원탁도 조선일보가 배출한 스타였다.

1987년 우승자인 김재룡은 1993년 보스턴마라톤에서 2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위를 차지하며 한국 마라톤의 힘을 보여줬다. 김완기는 1991년 춘천코스에서 2시간 11분 02초의 한국기록을 수립하며 정봉수 감독이 이끄는 코오롱 마라톤팀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1994년 2시간 9분 59초의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한 이봉주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은메달로 세계 톱클래스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대회였던 1997년 모제스 타누이(케냐)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국내선수 중에서 가장 좋은 기록 (2시간 9분 21초)을 세운 김이용, 2001년 우승자 지영준이 잇달아 등장했다. 1997년 한국 여자 최고기록(2시간 26분 12초)을 세운 권은주, 1994년부터 2005년까지 6차례나 우승한 윤선숙 역시 조선일보 마라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들이다.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은 조선일보 춘천마라톤을 ‘가을의 전설’이라고 부른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삼악산을 쳐다보며 물 좋은 의암호를 끼고 달리는 코스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이다. 춘천종합경기장을 출발해 의암댐과 신매마을, 서상교, 춘천댐, 소양교를 돌아 춘천시내를 통과하는 의암호 순환코스에서 조선일보 마라톤이 처음 열린 것은 1991년이였다.

조선일보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시간 10분 벽을 깨기 위해선 매년과 교통난을 피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잠실종합운동장~성남’ 코스를 포기하고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춘천을 선택했다. 강원도 육상경기연맹 홍종천 부회장의 노력으로 개발된 춘천 코스는 지방도시 중 처음으로 공인을 받았다. 맑은 공기와 완만한 경사도,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 등 여건이 좋아 호기록이 작성될 것이란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그해 김완기가 2시간 11분 02초의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 코스는 1994년 국제 공인을 받았다. 늦가을 정취에 흠뻑 취해 달릴 수 있다는 것 말고도 춘천 코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참가자에게 물 한 사발 떠주고, 박수를 아끼지 않는 춘천 시민들의 넉넉한 인심이 있기 때문이다.

춘천 코스가 ‘가을의 전설’로 자리 잡기 전까지 조선일보 마라톤은 3개 마라톤 코스 구간에서 열렸다. 마라톤 코스가 처음 채택된 1970년부터 1979년까지는 서울운동장~의정부 순환코스에서,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도봉구 창동네거리~양주군 덕정 검문소 순환코스에서 치러졌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는 잠실종합운동장~성남시 운중동 왕복구간에서 대회가 펼쳐졌다.

‘풀뿌리 마라톤’으로 자리 잡아

2004년 조선일보 춘천마라톤대회는 완주자(2만 4133명 참가, 1만 7883명 완주) 기준으로 세계 10대 마라톤대회에 올랐다. 미국육상경기연맹이 집계한 완



세계의 건각들이 1997년 10월 26일 춘천국제마라톤에서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 태극 머리띠를 두르고 선두권에서 역주하는 이봉주의 모습이 보인다.

주자 수에서 뉴욕마라톤(3만 6562명)이 1위에 올랐고 시카고, 런던, 파리, 베를린, 호놀룰루, LA에 이어 조선일보 춘천마라톤이 8위를 차지한 것이다.

단축마라톤 시절 대한육상경기연맹 등록 선수가 아니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70년 마라톤 코스 대회로 바뀐 이후부터는 일반인의 참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국내에서도 일기 시작한 마라톤 붐을 타고 ‘보통 달림이들’의 대회 참가 욕구도 높아졌다. 춘천마라톤에 일반인이 처음 참가한 것은 국제대회로 치러 1995년이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공식적으로 일반인의 참가신청을 받지 않았지만 “반드시 뛰고 싶다.”는 풀뿌리 마라톤의 선구자 260명(남자 257명, 여자 3명)을 스타트라인에 세웠다.

대회 자체가 엘리트 선수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에 완주 제한시간은 4시간이였다. 1997년엔 일반 참가자가 3km, 5km, 하프마라톤, 마라톤 42.195km 4개 부문에 참가했고 숫자도 5000명을 돌파했다. 2년 뒤인 1999년엔 1만 2000명

으로 급증했다. 2001년 2만 명을 넘었다가 마라톤 레이스 한 종목만 개최한 2002년 1만 5939명으로 줄었지만, 2003년 본격적으로 '2만 명의 시대'를 열었다.

춘천마라톤이 풀뿌리 마라톤의 메카로 자리 잡은 것은 참가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다양한 서비스 덕분이었다. 1997년 개설한 춘천마라톤 인터넷 홈페이지는 마라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만남의 광장'은 마라톤을 확산시켜 수많은 동호회 결성의 계기를 마련해줬다.

인터넷 참가 접수, 스피드 칩을 이용한 전자기록계측, 기록집 제작(1998년), 페이스메이커 도입, 마라톤 캠프 운영, 기념품 택배 시스템 도입(1999년), 인터넷 사진서비스(2000년), 실시간 기록 문자 서비스(2002년) 등을 도입하자 다른 대회도 앞 다퉈 이를 따랐다. 2009년 춘천마라톤은 스타트 장소를 기존 춘천종합경기장에서 송암동 의암 레저스포츠타운의 신축 경기장으로 바꾸었고, 새 국제공인코스도 마련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일보 마라톤

부산~서울 대역전경주대회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5년 11월 14일, 부산시청을 스타트한 일단의 건각들이 490.5km에 이르는 국토종단에 나섰다. 먹고 살기 급급한 시절, 그랬기에 전국의 시도를 통틀어 참가한 팀은 육군특무부대, 서울, 해병대 등 3개 팀에 불과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기나 긴 비포장도로를 달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역이었다. 하지만 통일의 염원을 가슴 깊이 간직한 청춘들은 부산에서 임진각에 이르



1955년 11월 제1회 경부역전마라톤에 참가한 각 군 선수단과 군 관계자들이 중앙청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공군은 이듬해인 2회 대회부터 참가했다.

는 1225리를 달리고 또 달렸다. 개성을 거쳐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달리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겠지만 천리를 넘게 내달린 청춘들은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 이르러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한국일보는 1955년 '통일의 염원'을 기치로 내걸고 '부산~서울 대역전경주대회'(일명 경부역전마라톤)를 창설했다. 2012년 현재 58회째 대회를 치른 경부역전마라톤은 문홍주, 황규훈, 김원탁, 황영조, 이봉주 등 한국마라톤의 간판들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황영조와 이봉주는 경부역전마라톤을 밑거름 삼아 세계무대까지 제패했다.

2006년 제52회 대회까지 남성들의 전유물이던 경부역전마라톤은 이듬해인 2007년 제53회 대회부터 여자 선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남자 선수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자 선수들이지만 승부욕만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여자 선수들이 각 시도의 순위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면서 경부역전마라톤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한국 마라톤의 산실’ 이자 ‘버팀목’인 경부역전마라톤은 그동안 부산에서 파주 임진각에 이르는 1200여 리에 이르는 구간에서만 펼쳐졌다. 그러나 2012년 제58회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외곽 민간인 통제구역(통일대교~군내삼거리 7.2km)으로 코스를 연장해 총 528.8km를 달렸다.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 겸 전무이사로 이 대회 경기본부장을 맡았던 황규훈은 “부산~서울 대역전경주대회는 한국 육상경기의 젖줄이다. 중학생부터 실업팀 선수들까지 남녀를 불문해 같은 조건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대회로 한국 육상경기 꿈나무들이 첫걸음을 떼는 무대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는 국제역전마라톤대회도 조만간 현실화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중앙일보 마라톤

그린마라톤 지향하는 중앙서울마라톤

중앙서울마라톤 대회는 서울 잠실벌에서 펼쳐진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마라톤을 계승하고, 황영조 선수의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마라톤 제패를 기념하



1999년 서울 잠실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일보 서울 하프 마라톤대회 스타트 모습.

기 위해 1999년 창설됐다.

출발은 국내 하프 마라톤대회로 시작됐다. 그러다 2001년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로, 2002년부터는 마라톤코스대회로 격상됐다. 중앙서울마라톤은 2년 뒤인 2004년에는 아시아 마라톤선수권대회를 겸해 개최된 데 이어 2007년부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인증한 실버등급대회로 인정받았다.

2012년 11월 4일 서울 잠심~경기도 성남 순환코스에서 열린 제 회 대회에서는 케냐의 제임스 킵상 캄바이가 2시간 5분 50초로 우승해 중앙서울마라톤 대회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내 마라톤대회에서 두 번째로 나온 2시간 5분대 기록이다. 그 전까지는 케냐의 제이슨 음보테가 2006년에서 세운 2시간 8분 13초가 대회 최고기록이었다. 여자 부문 최고기록은 2007년 삼성의 이은정 선수

가 세운 2시간 29분 32초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마스터즈 부문에서는 마라톤과 10km 두 부문에서 매년 2만 명 이상의 동호인이 참가한다.

2009년부터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부문을 신설돼 명실 공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앙서울마라톤은 또한 다양한 자선 모금 활동과 친환경 마라톤대회의 지향 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마라톤대회로 위상을 다지고 있다.

경향신문 마라톤

대통령기 전국통일역전경주대회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KBS 방송을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 간 ‘이산가족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남북 적십자사가 협력하여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1000만 명 이산가족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 주며 재회再會를 주선하는 등 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였다. 북한 측은 이를 후인 8월 14일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첫 회담은 그해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처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가 터진 것을 계기로 그해 10월 경향신문사가 창간 25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역전경주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과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남북통일의 열망을 담아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북진北進하며 달리도록 코스를 잡았다. 특히 38선이 그어진 지 26년 만에 서울 이북 코스에서 열린 최초의 스포츠 행사였으며,

반환점 없이 북진해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최북단 지점에서 피니시하는 코스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경향신문 측은 “한국의 국력을 북한 땅에까지 넘치게 하고, 청소년 육상경기 인구의 저변 확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이 대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통일 조국을 되찾는 날 코스를 북녘 끝 평양까지 연장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흔히 ‘경향통일역전마라톤’으로 불려온 이 대회의 원래 명칭은 ‘대통령기쟁탈고교통일역전마라톤대회’였다. 스포츠 보급·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우승기를 내리는 대회라는 뜻에서 대통령기라는 명칭이 붙었다. 또한 고교 대항전이자 각 시도 대항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면서 경쟁의 열기가 뜨거웠다.

제1회 대회에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서울 3개 팀을 비롯해 10개 시도에서 16개 팀(12개 단일팀, 4개 혼성팀)이 참가했다. 단일팀은 한 학교가 한 팀으로 참가한 것이고, 혼성팀은 여러 개 학교가 지역을 대표하여 참가한 경우를 가리킨다. 제1회 대회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출발해 판문점 입구 ‘자유의 다리’까지 52.7km를 6개 구간으로 나누어 달렸는데, 혼성팀으로 나온 충남이 2시간 41분 8초의 기록으로 첫 ‘대통령기’를 차지했다. 2위는 배문고, 3위는 숭문고였다. 첫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숭문고 채준석에게 돌아갔다. 그는 대학에 진학해 선수 생활을 하다 체육교사로 후배 양성에 매진했다.

2회 대회에는 전국에서 54개교가 참가했다. 특히 각종 육상경기대회 참가 경험에 있는 팀을 1부교(28개 팀), 이 대회를 계기로 처음 신설된 팀을 2부교(26개 팀)로 나누어 진행할 만큼 1회 대회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2회 대회에서는 대전의 대성고가 스타트부터 선두를 달려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대성고는 1973년에도 2연패에 성공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973년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제24회 전일본학생역전경주대회에 3회 대회 우승팀인 대전 대성고를 파견하기도 했다.



☞ 2012년 11월 1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제42회 대통령기 전국통일역전경주대회 스타트 직전 선수들의 모습.

한편 2회 대회 5구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광주 조대부고를 단숨에 2위로 끌어올린 문홍주가 이듬해인 1973년 동아마라톤에서 김차환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역전경주대회가 마라톤 유망주의 등용문임을 입증했다. 문홍주는 1975년과 1976년 동아마라톤에서 두 차례 우승을 했다.

그 밖에 1976년과 1978년 동아마라톤에서 두 차례 우승한 박원근, 1990년 아사히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송재필, 1992년 조선일보 마라톤대회 우승자인 백승도, 1991년과 1992년 요미우리 국제마라톤대회를 잇달아 제패한 이창우,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1만m에서 2위를 하고 1993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2위를 한 김재룡 등이 모두 고교시절 통일역전경주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스타로 성장한 선수들이다.

1981년 제11회 대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유치를 기념하여 코스를 전국 순회로 변경했다. 전주~광주~순천~진주~부산~밀양~대구~김천~대전~천안~서울에 이르는 967.9km를 열흘간 달리며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대회 주역이 될 마라톤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상경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서였다. 결과는 51시간 20분 12초를 기록한 경북팀이 우승을 했다. 당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부천고의 원종혁은 1987년 조선일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다.

1985년 제15회 대회에는 코스를 전주~임진각까지 465.4km를 6일간 달리는 것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1986년 제16회 대회에는 대구~서울까지 809.1km를 8일간 달리는 것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1990년대들어 서울~통일로~임진각까지 47.6km를 달리는 행사로 정착되었다.

2012년 11월 제42회 대회가 서울 중구 정동에서 출발해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까지 47.2km의 코스에서 열렸다.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제주 등 8개 시도의 건각들이 고향의 명예와 통일의 염원을 안고 레이스를 펼친 가운데 배문고 단일팀인 서울시가 지난 대회 기록보다 4분을 앞당긴 2시간 24분 44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에 성공했다. 일찌감치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배문고는 2012년 전국체육대회 10km에서 우승한 나현영을 비롯해 3학년 에이스들이 모두 참가해 우승을 거머쥐었다.